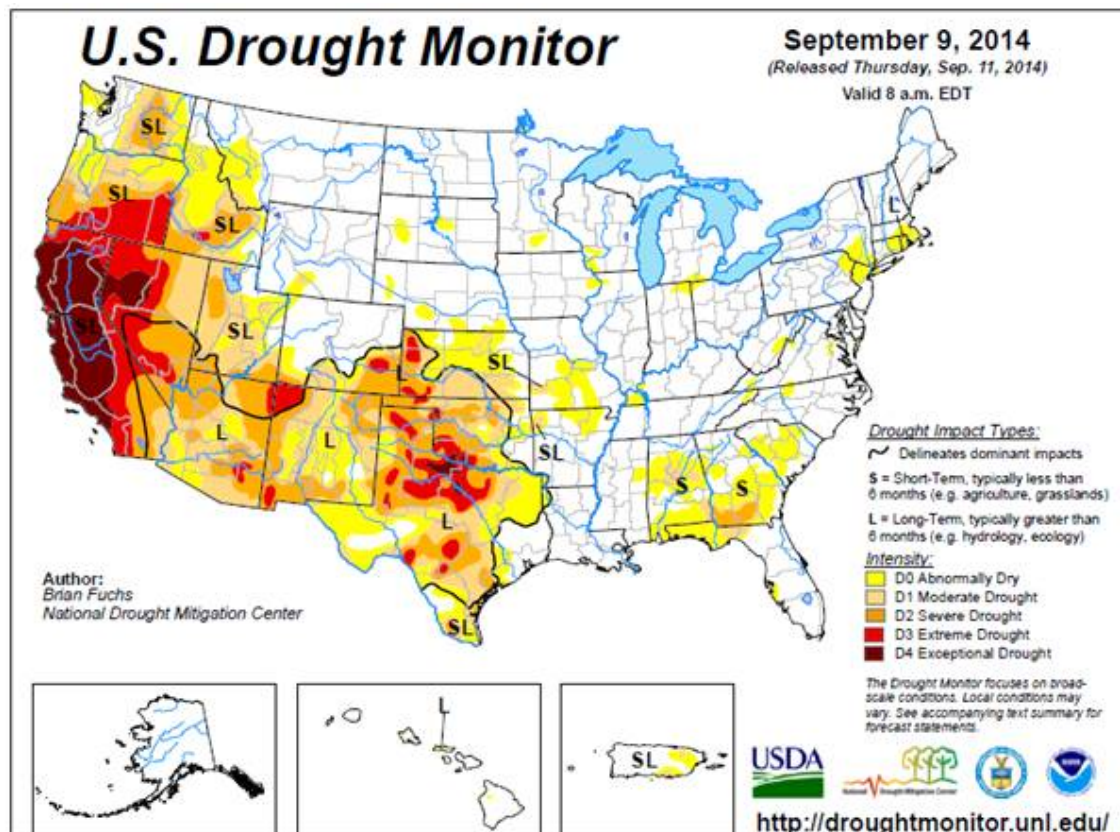


9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37)

□ 미국 기후 현황(09/07~09/13)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발생한 대평원, 남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한랭전선이 형성되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인 남서부 콘벨트와 캐롤라이나 인근에서는 4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중서부 지역에 내린 강우는 후기 생장중인 옥수수와 대두에 효과적인 수분을 공급하였으며, 남동부에 내린 소나기는 수확 작업을 방해하였으나 표토층 수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였다. 대평원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로 인해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파종된 가을밀에는 도움이 되었다. 북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8월 후반 많은 양의 폭우로 인해 작물 품종별 품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생산자들은 봄에 파종된 작물들의 수확을 완료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강력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북부 대평원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10°F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운 날씨가 남동부 지역에서는 몇 일간 발생하였고 점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넓은 지역에 발생한 영하권의 기온은 동부 오리건과 북부 미네소타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중서부 상단에서

재배중인 옥수수와 대두는 서리와 가벼운 영하권의 기온을 피해갔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생육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에는 일리노이와 미주리 지역의 경우 40°F 또는 그 이하의 낮은 기온으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몬순대기와 결합된 수분과 동부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Norbert가 Four Corners States와 남부 Great Basin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홍수가 발생하였다. 한편, 시즌 후반 태평양 연안 주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고온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양의 관개수요 발생과 산불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09/08~09/14)

서늘한 날씨가 미국 북부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몬태나와 인디애나에서는 평년보다 6°F 정도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동부 몬태나와 서부 다코타에서는 평년대비 12°F 낮은 평균 기온이 기록되었다. 주간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미시시피 계곡 중류와 캐롤라이나 연안지역의 경우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어 예외적이었다.

■ 옥수수

9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황숙단계(dent)에 진입한 옥수수는 82%p로, 전년동기 대비 3%p 높고, 5년 평균대비 3%p 뒤쳐진 수준이다. 주말 기준, 성숙단계에 진입한 옥수수는 27%p로, 전년동기 대비 7%p 앞섰으나, 5년 평균대비 12%p 낮은 수준이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옥수수의 수확은 4%p로, 전년동기 동일한 수치이며, 5년 평균대비 5%p 낮은 상태이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4%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대비 21%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9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낙엽(dropping leaves)현상을 보이는 대두는 24%p로, 전년대비 동일하고, 5년 평균대비 8%p 뒤쳐진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평년대비 서늘한 날씨는 대두 생산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두의 마지막 성숙단계를 지연시켰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2%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전년 동기대비 22%p 높은 상황이다.

■ 쌀

9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36%p의 쌀을 수확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p 높은 수준이지만, 5년 평균대비 9%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칸사스 지역의 미시시피 계곡유역에서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하여 쌀의 수확이 지연되었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74%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동일한 수치이며, 전년동기 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9/07~09/13)

- 유럽: 동부 유럽에서는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형성되었다. 정체된 폭풍전선은 동부와 남동부 유럽에서 25-100m의 비를 내렸으며, 남서부 폴란드에서부터 이탈리아, 북부 발칸지역에 이르기까지 가을밀과

유채뿐 아니라 여름작물의 수확을 저해하였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북서부 유럽 사분면 적에 팽배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북서부 독일에서 겨울 곡물의 파종에 용이하게 작용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가 형성되어 야외 농작업에 효과적이었으며, 주 후반 비(3-22mm)가 내려 다가올 가을밀과 보리의 파종을 위한 토양 조건을 형성하였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소량 또는 적당량(4-35mm)의 비가 내려 면화의 성숙과 수확이 지연되었고, 발틱주에서는 2-20mm의 비가 내려 작물의 수립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 구소련(서부): 덥고 건조한 날씨가 전국에 나타나 빠른 속도로 야외 농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남서부 러시아에서는 많은 양의 강수량이 필요하였다. 특히, 맑은 날씨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평년대비 2-5°C 높음)은 중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까지 가을밀의 파종뿐 아니라, 여름작물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비와 폭풍(10-50mm)은 남서부 러시아에서 가을밀의 수립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을 향상시켰다.
- 동아시아: 중국 전역에서 비가 내려 후기 여름작물에 효과적인 수분을 공급해 주었으나, 초기 파종된 작물의 경우 성숙과 수확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중국 북동부에서는 주 초반 비(10-20mm, 50mm에 육박하기도 함)가 내려 서부 하이룽장 지역에서의 옥수수과 대두의 충전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에 좋았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생육기간이 형성되므로 작물들이 9월 한 달 간 지속적으로 수분을 보아야 한다. 남부지역에서, 주 중반에 비(10-25mm)가 내렸으며, 중국 북부 대평원에서는 후기 시즌 수분 공급량이 적어 문제를 겪고 있으며, 6월에 파종된 옥수수에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강수량은 성숙이 진행되고 있는 대두와 같은 작물들과 개화를 앞둔 면화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기상조건이 되었다. 한편, 양쯔 계곡 인근에서는 비(25-150mm)가 지속적으로 내렸다. 한국의 경우 맑고 더운 날씨는 쌀의 성숙도에 도움을 주었으나, 서늘하고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일본의 쌀 수확전망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호주: 호주 서부 지역에서는 주 초반 내린 소나기(5-20mm)와 중·후반 맑은 날씨가 결합되어 대체로 충전을 위해 개화 단계에 진입한 겨울 곡물과 유채가 자라기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동부지역인 호주 남부와 서부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더욱 넓은 지역에 산발적인 비(2-8mm)가 내렸으나, 겨울 작물의 재생산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분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동부 빅토리아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비(5-25mm)가 내렸으며, 재생산을 진행중인 밀, 보리, 카놀라에 효과적이었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와 남부 퀸즐랜드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미숙한 겨울 곡물에 대한 수분 공급을 감소시켰지만, 초기 여름작물 파종은 지연 없이 진행되었다. 중부 퀸즐랜드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5-25mm)가 내려 겨울 곡물의 성숙을 위한 건조단계는 지연되었으나, 면화와 수수의 앞선 파종을 위한 토양 수분은 향상시켜 주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과 거의 비슷하였다. 한편, 남동부와 서부 호주의 경우 평년대비 더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평균 1-3°C 높음)는 겨울 곡물과 유채의 생육을 가속화하였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동부 농업지역에서는 비가 점차 소강상태에 진입하였으나, 일부 비가 내림에 따라 국지적으로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동부 대부분 Buenos Aires 및 북부와 동부 Corrientes와 Misiones의 총 강수량은 25m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지적으로는 5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서부로 갈수록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La Pampa 북부에서 Salta와 Formosa에서는 실질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 2°C 높았으며, 넓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밀과 보리의 생육에는 선호되는 조건이 되었다. 전주 대비, 강수량은 급격히 줄었으며, 조금 내린 비는 지역적으로 야외 농작업을 지연시켰다. 9월 11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Buenos Aires 지역에 가을 밀 파종이 되지 않고 남은 면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북부 농업지역에서는 면화의 수확과 해바라기 파종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많은 양의 비가 브라질 남부에 내렸으나 지난주에 비해 강수량은 대체로 낮았다. Rio Grande do Sul의 총 강수량은 50mm 정도였으며, 국지적으로 100mm가 넘는 곳도 있었다. 서부 Parana에서 북부 및 서부 Mato Grosso에서는 총 강수량이 100mm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지역에서는 미숙한 밀과 북부 지역에서는 대두의 발아에 충분한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게 하였다. 동부 Mato Grosso와 남동부 Sao Paulo 및 Minas Gerais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이 예정된 대두와 커피 및 사탕수수의 생육에 환영 받을 만한 조건이 될 것이다. 특히, Mato Grosso에서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낮 최고 기온 40°C에 육박)으로 인해 9월 15일 파종일이 도래함에 따라 높은 수분 증발 손실이 이어졌다. 한편,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10-100mm)가 내려 북동부 연안을 따라 사탕수수와 코코아에 필요한 수분이 증가되었다.